

“광양만권 지역 항공사 설립, 수익 창출 과제 풀어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여수공항 국제선 취항 필요 여수·순천·광양시, 여수공항 항공기 감편 저지 공동 성명도

여수와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가 여수공항에 추진 중인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청에서 열린 ‘광양만권 3개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지역항공

사 설립을 위해서는 수익창출과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여수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보고회에서 여수공항에 저가항공사(LCC) 설립을 위해서는

국내선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보고 국제선 운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여수공항의 탑승률은 70% 전후로 항공사의 손익분기점인 90%에 크게 못 미쳐 지금보다 30% 더 높아야 국내선 증편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저가항공사 운항은 국제선 취항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여수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세기를 유치해 운영하는 부정기선도 올림피아나 엑스포,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릴 때 가능해 여의치 않다.

회의에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여수는 국내공항이면서도 수도권과 가장 먼 거리에 있어 지역항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국제선 취항을 위한 노력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용역기관에 요청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여수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국내선 수요가 높아 하고, 국토교통부의 부정기 국제선 허가 처리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등 3개 시는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김포노선 감편 운항과 관련 지난 7

일 감편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여수공항 항공노선 증편과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여수공항의 거점공항 승격 반영,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은 58만9996명으로 2016년보다 17%나 늘었지만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27일 동계 스케줄부터 김포-여수 노선을 1일 2회에서 1회로 감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관광 남원’ 만들기 마을사무장이 앞장선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연·문화 등 총 6강 진행

남원시가 마을별 개성을 발굴·소개하는 중심축인 농촌마을 사무장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 알리기에 나선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마을사무장들은 농촌축제공모와 으뜸마을공모, 생생마을 콘테스트, 폐자원을 활용한 작은 음악회 등 지역관광에 필요한 상품개발과 체험 관광 운영에 앞장서 왔다. 시는 지속적인 역할확대를 위해 마을사무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남원의 자연과 문화 등 총 6강으로 매주 금요일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이원주 남원시장은 지난 7일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촌마을 사무장 1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주재했다. <사진> 이 시장은 ‘차별화된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고 농촌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설명했다. 마을사무장들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농촌활력프로그램과 농촌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앞서 상반기에 19개 마을에 3000



남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무장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행복한 농촌마을 가꾸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역 발전’ 청년 아이디어 시정 반영 정읍시, 청년 해커톤 운영...희망자 모집

정읍시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책으로 눈길을 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을 운영한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 기획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시는 도시재생 해커톤을 지난해에 이어 오는 28일과 29일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행사는 팀별로 창업과 관광, 주거,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주제를 선택해 그에 따른 아이디어 발굴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원도심 현장 투어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기초 조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직접 실행해보고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 또는 전북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행사 후 심사를 통해 선발된 5팀에 대해서는 400여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수한려문학상’에 임호상 시인

여수에서 30여년간 활발한 문단 활동을 이어온 임호상 시인이 ‘2019 한려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수한려문학상은 지역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대표적인 문학상이다. 임 시인은 문인협회 등 문단과 이벤트프로모션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4년부터 여수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협회 사무국장과 부지부장을 거쳐 24대, 25대 여수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여수 문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신병은 시인은 “임 시인은 우리 시대의 행복전도사라

할만하다”며 “삶의 질을 챙겨주는 기획자로서 우리가 보지 못한 일상 속 행복을 들춰내어 보여주는 것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임을 일깨워 준다”고 했다. 1986년 갈무리문학동인으로 문단에 입문한 임 시인은 2008년 ‘정신과 표현’에 겨울노동 외 4편으로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시집 ‘조금새끼로 운다’와 시화집 ‘여수의 노래’를 발간했다. 갈무리문학회의 공동 시집 ‘여수의 바다는 달고 푸르다’ ‘여수, 섬에 물들다’ ‘그림자라도 저 많은 꽃을 피우시네’ 등 3권을 발간했다. 임 시인은 행사 기획사인 (주)소리기획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여수한려문학상을 수상한 임호상(가운데) 시인이 시상식 후 문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소리기획은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 당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맺고 다수의 국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지역 대표 종합문화기획사다. 2016년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임 시인은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중앙회 부회장과 전라남도지회장을 맡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교생 취·창업시 1인당 최대 50만원 순창군,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17일부터 신청 접수

순창군이 지역 고등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는 2018년 일자리 창출 우수 사군 평가 인센티브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이 취·창업 관련 교육 수강 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한 뒤 작성한 신청서를 순

창군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마용, 네일아트,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된 과목으로, 교육 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교육비 납부 증명서와 출석부를 확인해 보호자 통장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